

들어가면서.

- 모든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주된 관심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있다. 누가 하느님의 참 대변자/revealer 인가?(요 1:1-5) 유대교 문화권에서는 모세요 또는 다윗왕 후손들이다. 헬라문화권에서는 황제가 신의 뜻을 대신한다. 과연 그럴까? 이것이 복음서가 제기하는 질문이고,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훨씬 고민한 흔적을 보인다.
- There was a human being in the first century who was called “Divine,” “Son of God,” “God,” and “God from God,” whose title were “Lord,” “Redeemer,” “Liberator,” and “Savior of the World.” Who was that person? Most people who know the Western Tradition would probably answer,..., Jesus of Nazareth. And most Christians probably think that those titles were originally created and uniquely applied to Christ. But before Jesus ever existed, all those terms belonged to Caesar Augustus. To proclaim them of Jesus the Christ were not simply using ordinary titles applied to all sorts of people at that time, or even extraordinary titles applied to special people in the East. They were taking the identity of the Roman emperor and giving it to a Jewish peasant. Either that was a peculiar joke and a very law lampoon, or it was what the Romans called *majestas* and we call high treason. (John Dominic Crossan, *God and Empire: Jesus Against Rome, Then and Now*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7], 28.)

I. Prologue (요 1:1-18). High Christology.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 말씀이 성육신(1:1-2, 14).

- “in the beginning” => 창 1:1 (요 1:4-5 light/darkness <= 창 1:3-5)
- 말씀(Heb. *dabar*; Gr. *logos*)이 선지자들에게 내림(렘 1:2, 4; 겔 13:1; 호 1:1; 슥 1:1). 말씀은 계시의 사건
-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다(dwelling<= tent/tabernacle).

A. 다른 유대 지혜문학과 공통점

1. 문학적 패턴: 지혜문학, 반복된 말(word, light in vv. 1-5)
2. 잠언, 솔로몬 지혜서, 바울(고전 1:24)
 - 잠 8:22-23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 지혜서: “the fashioner of all things”(7:22)
 - For she is a breath of the power of God, and a pure emanation of the *glory* of the Almighty; therefore nothing defiled gains entrance into her. For she is a reflection of *eternal light...* (7:25-26)
 - God of my ancestors and Lord of mercy, who have made all things by your word (*logos*), and by your wisdom (*sophia*) have formed humankind (9:1-2)
 - 바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 필로(philos, 20 BCE—50CE): “God’s First-born [is] the Word (*logos*), who holds the eldership among the angels...” (*Conf. Ling.* 146)

B. 주요 사상과 문제점

1. 성전을 대체한 예수
 -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여기서 “우리”는? (cf. 3:11; 19:35; 21:24)
 - 1요 1:1-3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 거하다(dwelt, Gr. *skēnō* <= Heb. *shakan*)=> 출 24:16; 25:8, 29:45-46.
 - 신학적/정치적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tent/tabernacle)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곧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다. 광야생활의 장막을 대신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던다면, 이 말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도전이다. (=> 2:19-21)

2. 세상(kosmos)

- 신약(186)=> 복음서(93)=> 요한복음(78)
- 세상 그 자체로는 선악과 상관없으나(1:9-10a), 점차 심판(1:10b-11)과 구원(3:16-17)의 대상

3. 독생 하신(Gr. *monogenes*) 하나님—두 가지 해석

- 유일한(only/only-kind) 아들(공동번역). 읽고 해석하기 쉽다. 요한복음의 신학과 일치 (아버지와 아들).
- 독생—only begotten—하신 하나님(개역, 표준새번역). 고대 사본에 나타남. 신학적으로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피조물로서의 신, 자생하지 않은 신은 하나 뿐).
- 혹은 “유일한 자/독생자”(monogenes), “하나님(theos), “아버지 품 속에 있던 자”를 모두 동격으로 보아 해석할 수도 있다(“only one, God, the one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1:17)가 하느님을 “설명해 주었다”(exegeomai => exegegis, 주석)는 선언. 14 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 하느님을 본다/안다.

II. Narrative Introduction (요 1:19-51)

A. 세례요한과 요한복음의 증거(witness, *martureo*, 33 번; 공관복음 전체에 2 번)

- 예수가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없다. (cf. 막 1:17-20; 마 4:19-22; 눅 5:1-11)
-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 빌립 (요 1:35-44; 6:5-8; 12:21-22)
- 예수의 시험(temptation), 하나님 나라 선포가 없다. (제 1 강 참조)
-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엘리야에 비유(막 1:2; 9:11-13; 마 17:11-13). 요한은 이를 부인(요 1:21). 요한은 단지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로 만족(1:31).

B.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요 1:17, 29-36)

-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cf. 신 6:4,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 하나님의 아들=> 유대 왕(royal king) 혹은 로마 황제 (Caesar).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은 정치적 위협. Cf. 빌립: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1:49) <=시 2:7
- 하나님의 어린 양(1:29). 성전체제에 대한 도전. 앞 구절(1:19-28)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경찰요원(제사장, 바리새인)과의 대면 직후.
 - 세상 죄(단수형)를 지다. 요한의 세례는 죄(복수형) 사함을 위한 세례(막 1:4; 눅 3:3; cf. 마 3:4).
 - 세상의 죄란? 지배체제. 월터 윈크, “권세들의 네트워크(연결망)가 우상(偶像)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35). 죄란 바로 이런 지배체제에 물들어 움싹달싹 못하는 상태. 내 뜻/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그런 지배체제하에 있는 것 또한 죄.
 - 공관복음서에서 회개란 이런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하느님 나라 운동—새로운 정치/종교 체제, 나눔과 섬김—에 참여함을 의미. 회개=마음가짐을 바꿈(*metanoeo*).

----- 생각해 보기

1. “예수는 하느님의 어린양과 같다.” “예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생명의 떡, 부활, ...)
2. 요한복음의 이원론적 사고(dualism)—빛과 어둠, 참과 거짓—과 관련해서.
He has created man to govern the *world*, and has appointed for him *two spirits* in which to walk until the time of his visitation: the *spirits of truth and falsehood*. Those *born of truth* spring from a fountain of *light*, but those *born of falsehood* spring from a source of *darkness*. All the *children of righteousness* are ruled by the *Prince of Light* and walk in the ways of *light*, but all the *children of falsehood* are ruled by the *Angel of Darkness* and walk in the ways of *darkness*. (*Rule of the Community*, 1QS 3:17-24, emphasis added.)